

## 2026년 제천화폐 ‘모아’

### 할인율 12%로 운영한다

제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화폐 ‘모아’의 구매 할인율을 12%로 상향 운영한다.

이번 할인율 조정은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화폐 할인율을 최소 10% 수준으로 유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제천시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2%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올해 하반기 형성된 지역 내 소비 순환 흐름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천화폐 ‘모아’의 월 구매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유지되며, 지류형은 만 40세 이상 시민에 한해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제천시는 이번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내년에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산막이시장, 그린뉴딜

### 지중화사업 일부 준공해

괴산군(군수 송인환)은 괴산을 산막이시장 일원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의 일부 구간을 부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괴산대교에서 금산삼거리까지 약 0.9km 구간을 대상으로 도심 내 가공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립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전선 지중화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중심 상권 일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부분 준공 구간은 국도 19호선(괴산대교~금산삼거리)으로 전선관 매립 공사와 보도 정비를 완료하고 굴착 이후 임시포장 공정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준공으로 해당 구간의 보행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다.

산막이시장은 괴산을 지역 경제의 중심지인 만큼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전선으로 인한 시야 방해 요소가 줄고 보행 공간이 정비돼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서 2025년 1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인초 통학로 인근 구간의 지중화 공사를 마무리해 통학로 주변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 동선을 정비했다. 2026년에는 젊음의 거리 구간 전선관 매립과 전주 철거, 가로등 설치 등 잔여 공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 도심 무인항공 혈액배송 실증 성공해!

### 대전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도심 장거리 무인항공 배송 실증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장거리 혈액 배송 실증에 성공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국군대전병원, 태경전지㈜, ㈜윌로그가 공동 참여했으며, 응급 상황 시 혈액·의무물자의 신속한 공급 가능성 검증은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충남 혈액원에서 국군대전병원까지 무인수직이착륙기(VTOL) 1대와 무인멀

티콥터 1대를 투입해 비가시권 위성항법 기반 자동비행 실증을 수행했다.

실증 결과, 두 기체는 시속 약 50~79km로 35km 이상을 안정적으로 비행했으며, 군·경·소방 항공기 운항이 잦은 도심 여건을 고려해 지형추종 비행 기술을 적용, 도심·산악·하천 등 복합 환경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했다. 상용화할 경우 출·퇴근 혼잡 시간대 기준 차량 이동 50분 대비 긴급 배송 시간을 약 15분 내로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이번 실증을 위해 국

군대전병원 내 상황실 1곳과 통제센터 2곳·거점-배달점 간 4개 비행로를 구축하고, 드론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과 관계자 안전관리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안전·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비행 안전성 검증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실증비행을 실시한 결과 총 67회 비행(멀티콥터 43회, VTOL 24회)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혈액 운송시간 차량 대비 50% 단축 ▲혈액·드론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배송 정확도 96%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손철웅 실장은 “의료용 드론 배송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실증 결과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국종 원장은 “국내 최초 무인항공 장거리 혈액배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혈액검체 이송으로 “야전 및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및 고난이도 치료에 대한 의무물자 항공군수지원 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채봉 기자

## 셀트리온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 및 고시

### 도·예산군·셀트리온, 단지 조성 협력…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순항’

충청남도는 셀트리온 입주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30일자로 최종 승인·고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의 입주가 공식화되면서 도는 농생명과 바이오산업을 아우르는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2월 도와 예산군, 셀트리온은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산업단지 조성 전략과 기업 투자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번 사업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 국내 첫 사례로,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승인된 산업단지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사업으로, 조성 규모는 11만 9000㎡다.

산업단지계획에는 산업시설용지 조성, 재해·환경영향 저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생명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농업의 선도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셀트리온의 참여를 계기로 관련 기업 유치가 촉진되고 기술과 인력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클러스터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도와 예산군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는 도와 예산군, 셀트리온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

며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충남이 대한민국 농생명·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광역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도가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서산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대산단지)에 ‘에너지 지산지소’ 길을 뚫었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산단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대산단지에서는 HD현대이앤에프가 299.9MW급 LNG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HD현대오씨아이,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특화지역 내 14개 기업에 공급한다.

이현진 기자

## 가상현실 교육 학교폭력 선제대응

### 청소년 2,000여 명 대상 체험 교육 만족도 95점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가상현실(VR) 체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세종시자경위가 자체 제작한 학교폭력 예방 가상현실 콘텐츠를 탑재한 장비를 관내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대여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휴대전화 데이터 갈취 등 학교폭력 상황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도록 구성해 학생들이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7개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총 2,000여 명의 학생이 가상현실 체험 교육을 이수했다.

세종자경위는 교육 현장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 기기를 직접 전달·회수하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학습 설명서 제공, 교직원 대상 기기 사용법 대면 교육 등을 지원했다.

맞춤형 지원이 호응을 얻으면서 교육 참여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9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세종자경위는 내년 2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가상현실 교육콘텐츠 체험(대여) 사업’ 신청을 받고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남택화 위원장은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참여 부스를 모집한다.”

한편, 세종시가 ‘2026년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에서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참여 부스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30개 내외다.

이채봉 기자

## 아동복지교사 전문성 교육 실시해



대전 중구는 29일 아동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복지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아동 권익 보호 및 복지교사 사업 안내 ▲아동복지교사 복무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중구는 2026년도 아동복지교사로 5개 분야 총 30명[기초학습 16명(만일제 포함), 영어 7명, 수학 2명, 독서 3명, 음악 2명]을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했다. 이들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파견되어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아동복지교사 직무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아동을 더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 태평2동과 태평2동 자생단체협의회는 지역의 인재를 함께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결실로, 최근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한 태평2동 출신 학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합격한 학생은 가정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학업에 전념해 왔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약 6년 전 중구청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으며, 태평2동은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건강, 학습, 경제 등 다방면의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제공했다.

이채봉 기자

시통발 반도체 중심도시 오산